

## □부록□

# NEO-M

김 태 철<sup>†</sup>

### ◆ 목 차 ◆

- |                |              |
|----------------|--------------|
| 1. ERP의 기본 기능  | 3. NEO-M의 특징 |
| 2. NEO-M의 개발배경 | 4. 성공구축사례    |

## 서 언

한국경제는 IMF의 태풍을 겨우 벗어나 IMF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라는 거친 폭풍우는 이미 우리의 자존심을 앗아 갔으며 지금도 대폭적인 시장개방이라는 파고를 드높이며 보호무역의 방파제를 하나 둘씩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맹위가 오히려 ERP 도입에서는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F파고가 ERP 도입의 청량제가 될 것이라는 단적인 한 예로, IMF가 국내 금융산업에 요구한 외국의 공인된 회계법인의 감사 의무화, 연결재무제표의 도입, 재무제표의 국제화 등 국제 표준에 걸맞는 회계 시스템의 도입은 외국 투자자의 불안을 많이 불식시켜왔습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IMF시대에 국제표준화를 따라야 하는 국내 기업들이 ERP를 도입함에 있어서 ERP의 기본 기능과 더존의 ERP 시스템인 NEO-M의 구축전략 및 성공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1. ERP의 기본 기능

ERP가 제공하는 환경은 통상적인 ERP 패키지가 지원하는 기능이 매우 많고 복잡하듯이 일률

적으로 이를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의 ERP 패키지들을 종합해보면, 발전적인 형태의 ERP 패키지가 제공해야 하는 기본 기능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의 ERP 패키지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은 다음의 6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1. GUI 지원
2. CASE와 4GL의 지원
3. 진보된 형태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
4. 다양한 업종에 대한 지원
5. 글로벌 대응
6. EDI 지원

### 1.1 GUI(Graphic User Interface) 지원

편리한 사용환경은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RP는 WINDOWS 95 등을 통해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용환경인 GUI를 지원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1.2 CASE 툴과 4GL의 지원

CASE(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tool은 사용자가 분석한 업무의 흐름을 리퍼지토리(Repository)라는 데이터 저장소에 체계적으로 저장함으로써, 업무흐름의 분석을 문서화하고 ERP 적용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도

<sup>†</sup> 정회원 : 더존컨설팅 팀장

구이다. 사용자는 CASE tool을 통해 적용 대상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는 ERP 시스템에 직접 적용할 수 있으므로 ERP가 기업 업무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4GL(4th Generation Language)은 대용량의 자료 결과를 반복구조 등을 거치지 않고 대화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언어로써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ERP는 대규모의 기업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정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4GL을 지원한다.

### 1.3 진보된 형태의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이미 값비싼 중앙의 메인프레임과 수많은 dummy 터미널에 의해 이루어진 중집중형 처리 방식에 비해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우수한 성능과 관리의 편리성, 저렴한 유지비용 등은 이미 실증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 하겠다. ERP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장점을 흡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2티어(tier) 구조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를 넘어, 대용량의 멀티사이트 사이의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기 위한 멀티 티어 구조 등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 1.4 다양한 업종에 대한 지원

ERP는 하나의 업종에 종속적이지 않다. ERP는 푸쉬방식(후방위생산방식)과 풀방식(전방위생산방식), 플로우(Flow)생산방식과 잡샵(JobShop)생산방식 등의 다양한 일반제조업의 생산방식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등의 장치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의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업종을 지원하는 ERP제품들도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업종의 지원을 위해 ERP 개발사들은 각 업종에 맞는 종속적인 세부모듈을 따로 개발해 놓고 있으며, 사용자가 자신의 업종에 맞는 모듈을 선택해 ERP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5 글로벌 대응

ERP는 다국적언어에 대한 대응/다양한 통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며, 현지의 세계 등의 법적인 보고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연결회계관리 등도 지원할 수 있다.

### 1.6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 교환)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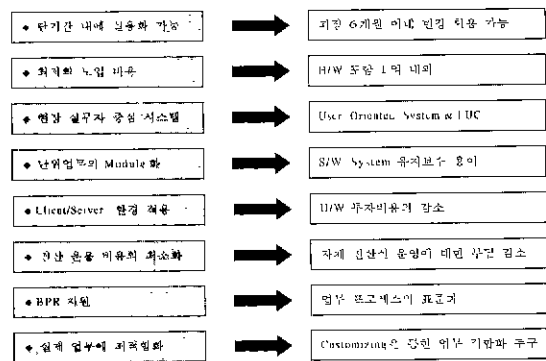
EDI는 기업의부의 거래자들과 기업내부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ERP는 EDI 메시지를 송수신하고, 이를 내부 업무에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ERP에 입력한 것을 또다시 EDI를 위해 중복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컴퓨터의 처리속도에 따른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나아가서는 특정 부품이 최저 재고량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발주하는 것과 같은 업무자동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 2. NEO-M의 개발배경

NEO-M은 최신의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수주에서 출하까지의 일련의 업무 흐름과 생산 관리, 영업/구매 관리, 관리 회계, 재무 회계, 인사 및 급여 관리 등의 기업의 전사적 자원 관리를 운용할 수 있는 통합경영정보 시스템입니다. 현재 시판되는 외국산 ERP가 매우 고가이며 ERP를 운용할 인적 자원 역시 전문한 실정인 중소기업에서 구입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점차로 전산화 나아가서는 ERP 구축에 대한 경영자들의 관심은 그들이 처한 열악한 경제적, 전산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경영자들에게 버금가는 정도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전산 마인드의 부재 등 중소기업을 전형적으로

묘사하는 이러한 특징들은 새로운 2000년을 앞둔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에게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왔고 경영자들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그들의 구매력을 넘어서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이러한 시도는 높은 전산화 투자비용에 못미치는 질 낮은 기능, 그들의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현 상태에 묶어두는 BPR을 전혀 도외시한 전산화 등에 막혀 계속 좌절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15,000여 중소기업에 MIS 패키지를 공급해 오면서 절실히 느꼈던 중소기업들의 좌절과 기대를 반영하여 3년여 걸쳐 20여명의 개발자들을 투입하여 NEO-M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정보화 방법을 탈피하여 저비용, 최단 기간, 최적의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지원하는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신개념의 Solution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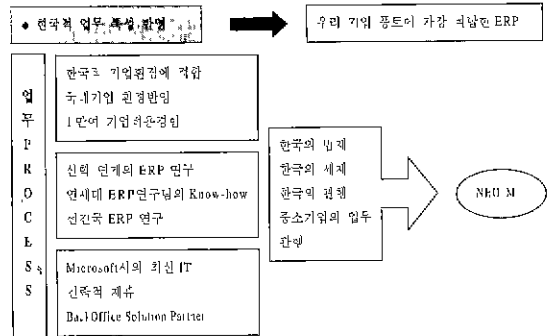


### 3. NEO-M의 특징

#### 3.1 중소기업의 한국적 기업 풍토 반영

ERP가 다양한 업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특화된 다양한 Template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수많은 업종에 솔루션을 구축한 경험은 필수적이다. 더존컨설팅은 이미

다양한 업종의 1만여 이상의 업체에 MIS 패키지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업무 환경과 한국적 기업 풍토에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적 기업 환경에 적합한 ERP를 개발할 수 있었다.



#### 3.2 BPR를 통한 업무 재구축 및 Customizing 작업의 최소화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최대 애로점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전산화에도 불구하고 업무생산성이나 경영성고가 만족스럽지 못하며 대부분의 경우 업무 프로세스나 작업환경은 옛날 그대로이며 다만 약간의 부문별 자동화를 이루었을 뿐이다.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라는 전산화 모토는 말뿐인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창업이래 그들의 업무 환경은 거의 변화가 없는 채바퀴도는 환경이었다.

이러한 환경을 탈피하는 길은 그들의 업무환경과 경영지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그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그 위에 ERP를 구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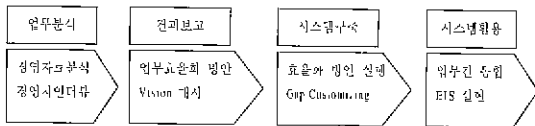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경영컨설팅은 중소기업이 지불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며 중소기업에 이해가 부족한 경우 잘못된 분석을 할 경우도 많으며 또한 대부분의 경우 심도있는 이해가 부족하다.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했거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더존컨설팅의 설

제, 분석, 컨설턴트들은 ERP 구축 업무 계약이 체결되면 그들의 경영지표와 경영자 인터뷰 등을 통해서 업무프로세스 중 비효율적인 부분을 명확히 추출하여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며 아울러 비전 제시, 업무 효율화 방안 제시 등을 하게된다.

경영자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컨설턴트는 ERP 구축에 앞서 본격적으로 업무 효율화 방안의 세부적 지침을 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컨설팅을 통해 업무 효율화 작업이 끝나면 그 위에 NEO-M이 크게 Customizing 되지않고 구축되게된다.

그러나 경영자가 컨설턴트가 제시한 업무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컨설턴트는 즉시로 NEOM과 현재업무 사이의 Gap분석을 하여 Customizing 범위와 개발비용을 산정하여 경영자에게 보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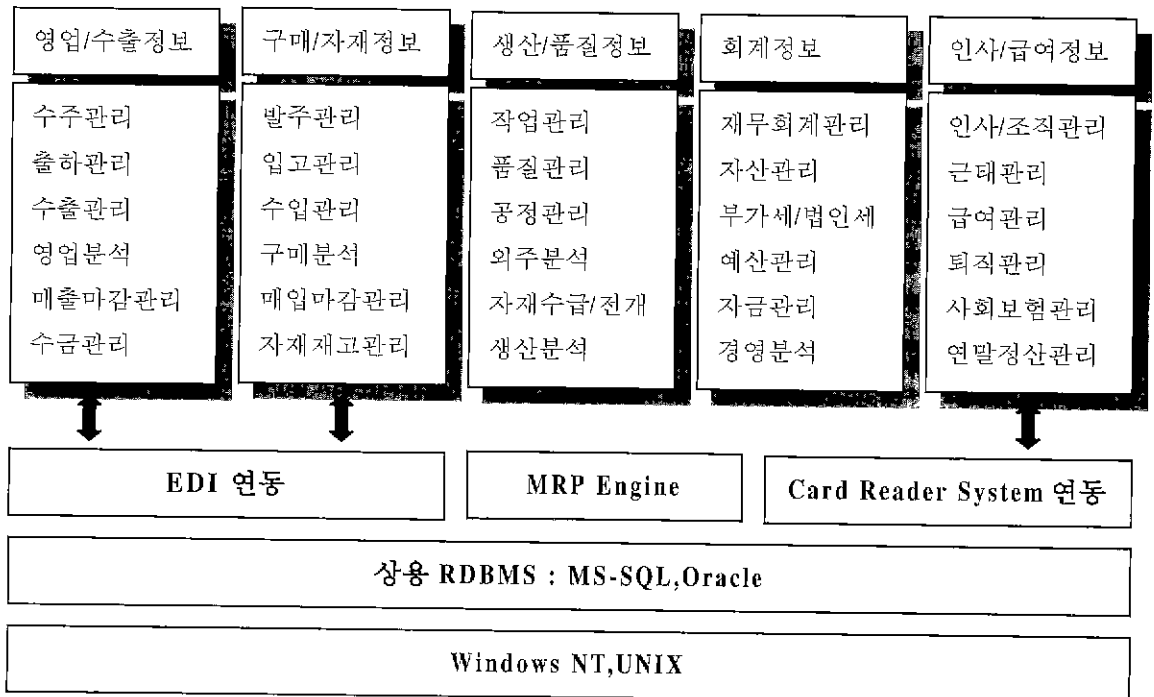


### 3.3 NEO-M의 구성도 및 기능별 특징

NEO-M은 모두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규모 따라 전체를 초기에 통합하여 구축하거나 모듈별로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NEO-M은 C/S환경에서 운용되고 있으나 2000년 초에 인사급여 시스템을 시작으로 Web Version으로 모두 바꿀 예정이다. 또한 사원 Self Service 기능을 대폭 확장해 End User에게 사용 권한을 대폭 이양해 영업, 구매, 생산, 회계, 인사 부서 등의 관리 책임자들은 고유업무의 핵심역량을 극대화하고 전략적 행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 ① 영업/수출정보

회계정보에서 생산제품의 원가를 즉시 파악하여 매출 단가 산출을 지원하고 생산 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며 수금,미수금의 현황을 즉시 파악하여 자금 관리까지 연동되며 EDI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계획,발주 내역이 수주 Data와 연동된다.



②.생산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를 시기 적절히 조달할 수 있도록 자재를 구매하고 그 자재를 유효히 관리하여 자재의 손실 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위해 MRP 등에 의해 구매관리가 가능토록 구성되어있다.

③.생산정보

수주활동과 연동되는 생산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계획에 의거한 생산을 수행하여 생산 전체의 흐름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④.회계정보

현업부서에서의 발생거래 또는 지급 품의를 자동 분개를 통해 전표처리하고 전표 승인 시 예산 통제 및 채권 채무 관리가 수행되며 자금 및 자산 관리까지 일관된 데이터 흐름을 통해 경리업무의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구성한다.

⑤.인사/급여정보

인력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의 구성과 사원의 근태에 따른 급여와 수당의 계산,반복적 업무의 자동화와 신뢰성있는 급여 체계를 확립하고,증가되는 제반업무에서 인력의 소모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4. 성공구축사례

마이스터(대표 오상수)는 98년 하반기부터 6개월에 걸쳐 NEO-M을 기반으로 ERP구축과 업무 재설계 작업(BPR)에 들어갔다. 마이스터는 한라그룹 계열사로 만도기계의 자동차 보수용부품 유통과 만도플라자라는 자동차 경정비 전문체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마이스터는 1997년 모기업의 위기와 98년 IMF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다.구조조정과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ERP구축과 BPR를 구조조정의 한 가지 방법으로 채택해 사내 업무 전산화 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

로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 개별적으로는 현업업무와 잘 융합해 비교적 문제가 없었으나 매출현황이나 사업부서별 손익을 산출하는데 개별시스템의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집계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관리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회계부서 매출 및 채권현황과 영업부서 매출 및 채권현황이 맞지않아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있었다.즉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안고있었던 것이다.

마이스터는 이러한 현실에서는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더존 컨설팅에서 제시한 네오엠의 회계,영업,구매,자재 모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98년 하반기부터 ERP 구축 프로젝트를 구성 이 프로젝트를 완료했고 본사와 지방사업장 3곳에 위 모듈들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올해부터 현업에 적용하고 있다.



김 태 철

1986년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1986년-1996년 (주)풍한산업 생산 관리실 근무  
 원가관리사(한국 생산성본부)  
 1996년-1999년 (주)더존컨설팅 ERP 팀 근무

연세대의 ERP PROJECT추진  
 NEO-M ERP 인사급여 설계  
 NEO-M ERP 구축 100업체 참여  
 현재 : (주)더존컨설팅 ERP팀 팀장